소음성 난청 예방의 시작
청력보호구

청력보호구는 산업현장에서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기 위해 착용하는 개인 보호장비다. 대표적으로 귀마개와 귀덮개가 있다. 소음이 85dB(A)를 초과하는 작업환경에서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적절히 착용하면 상당한 소음 차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글 편집실

청력보호구 착용이 필요한 조건(5dB(A) Rull)

1일 노출 8시간	1일 노출 4시간	1일 노출 2시간	1일 노출 1시간	1일 노출 0.5시간
85dB(A)	90dB(A)	95dB(A)	100dB(A)	105dB(A)

* 1일 소음노출 시간과 소음수준을 초과하는 작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 최초 노출 이후 6개월 이상 기저(baseline) 청력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청력의 표준 이탈(STS)이 있었던 모든 근로자

Earplugs
귀마개

Earmuffs
귀덮개

청력보호구란?

청력보호구는 귀마개와 귀덮개로 구분되며, 귀를 통한 소음 유입을 물리적으로 차단해 청력을 보호하는 보호구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소음 노출 기준(8시간 평균 85dB(A) 초과)을 넘는 작업장에서는 노동자에게 청력보호구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꼭 착용해야 할까요?

산업현장에서 소음성 난청은 가장 흔한 직업병 중 하나이다. 특히 작업장 구조상 소음 저감 장치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청력보호구는 실질적인 보호 수단이 된다. 비용 부담이 비교적 적고 적용이 간편해 국내외 산업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청력보호 종류와 특징

청력보호구는 귀마개(EP형)와 귀덮개(EM형)로 나뉜다. 각 보호구는 사용 환경과 개인 특성에 맞게 선택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 귀마개와 귀덮개를 동시에 착용해 차음 효과를 높이기도 한다(예: 115dB 이상 고소음 환경).

착용과 관리 요령

귀마개는 깨끗이 씻은 손으로 외이도에 맞게 깊이 삽입해야 하며, 불완전하게 착용하면 효과가 크게 저하된다. 귀덮개는 귀 전체를 완전히 덮도록 조절하고, 소음 작업장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계속 착용하도록 한다. 청력보호구는 오염, 마모, 파손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교체해야 한다.

사업장과 노동자의 역할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적절한 청력보호구를 충분히 제공하고, 착용법에 대한 교육 및 실습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의 착용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그 내역을 문서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노동자는 제공된 청력보호구를 정확하게 착용하고, 착용 중 문제가 생기면 즉시 보고하여 교체 및 조치를 받을 책임이 있다.

참고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청력보호구의 착용방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종류	특징	적합 환경	장점	단점
귀마개(EP형)	외이도에 삽입	고온다습, 장시간 작업	휴대 간편, 저렴	오염 시 감염 가능성 존재
귀덮개(EM형)	귀 전체를 덮음	간헐적 소음, 귀마개 사용 불가 시	귀에 이상이 있어도 착용 가능	무겁고 가격 높음